

#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12회, 그리스도 찬송가, 빌립보서 2:5-15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여기는 Dan Darko 박사와 그의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입니다.

여기는 세션 12, 그리스도 찬송가, 빌립보서 2:5-11입니다.

감옥 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와 함께 공부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이전 강의에서 중단한 부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빌립보서 2장에 도달했을 때, 저는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리스어로 긴 문장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문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조건절을 사용할 때 교회에서 관찰한 몇 가지 핵심적인 특성을 실제로 강조하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이것들은 교회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번역할 수 있고, 그들이 해야 하거나 살아있게 해야 하는 핵심적인 것들을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듯이, 그의 기쁨을 완전하게 하거나 그의 기쁨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바구니에 보관하십시오. 마지막 강의의 끝에서 저는 일반적으로 5절을 살펴보고 빌립보서 2장의 5절에 대한 생각을 간직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절에서 11절까지를 살펴보기 전에 5절의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 찬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5절로 돌아가서, 5절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찬송가로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는 측면에서, 5절은 실제로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장 6절에서 11절을 연결하는 전환 역할을 합니다. 6절에서 11절을 해석하려면, 5절이 어떻게 6절에서 11절을 해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과 6절에서 11절 사이 또는 그 사이에서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한 가지 사고방식, 즉 복음에 합당한 정신적 태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성격을 예시하거나 보여주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SV의 5절은 이렇게 읽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사이에 두십시오

몇 분 후에 보여드릴 일부 번역은 다르게 번역합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세요. 5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현대 주석가들은 5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고 재빨리 지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윤리적 독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윤리적 독해는 5절이 실제로 본받을 것을 요구하고, 교회가 예수의 삶을 본받거나 예수가 한 것처럼 생각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윤리적 독해는 실제로 5절이 6절에서 11절까지를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본보기로 생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고 말합니다. 5절의 두 번째 독해는 우리가 카리스마적 또는 구원론적 독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독해에서 그 입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실제로 5절을 읽을 때 ESV가 전달하려고 하는 일종의 설교자가 말하는 것처럼 5절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이에 이것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당신의 생각 속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5절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도록 부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태도나 패배적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여러분은 서로 다른 번역자들이 두 가지 견해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윤리적이거나 구원론적이거나 카리스마적.

카리스마는 사실 구원의 의미나 구원받은 공동체의 행동 방식을 담고 있는 설교적 요소나 구원론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네 가지 번역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SV와 NIV를 살펴보세요.

ESV와 NIV는 구원론적 또는 카리스마적 해석에 기울어지는 듯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끼리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것입니다. ESV.

NIV는 서로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귀찮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종류의 독서를 이해하기 위해 영어로 제공하는 일부 단어를 어떻게 깎아내리는지 매우, 매우 흥미롭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New King James Version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을 너희 안에 두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생각의 본보기로 삼으라. 이 특정 상황에서 내가 선호하는 번역인 NRSV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마음을 너희 안에 두라.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당신 안에 두십시오. 그리스도를 당신의 모델로 삼으십시오. 이전 강의 중 하나에서 제가 당신에게 미메시스라고 부르는 것을 언급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미메시스는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주요 인물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5절은 신학적이거나 카리스마적이거나 윤리적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5절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범으로 부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을 뿐만 아니라, 2장에서도 바울이 끌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가 따라야 할 좋은 모범으로 친구 디모데를 끌어낼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중요한 동료인 에바브로디도를 데리고 나올 것이고, 그는 또한 좋은 본보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3장에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때, 우리는 바울이 실제로 자신도 교회가 따라야 할 좋은 본보기라고 말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에서, 저는 5절이 그리스어가 있는 방식대로 더 문자적으로 번역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메시스,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당신 안에도 두십시오. 또는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주의 깊게 설명하거나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사고방식을 당신 안에 두십시오. 사고방식,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인드셋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빌립보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웨인 믹스가 옳게 표현했듯이, 이 단어가 지배하는 빌립보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성에서 인지 과정이나 정신적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믹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편지의 가장 포괄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그의 죽음에 맞춰지는 실제적인 도덕적 추론입니다.

그 단어를 번역하자면 기독교적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마치 마음이 어떤 생각을 담아서 잠그는 상자인 것처럼 마음속에 무언가를 간직합니다. 용광로는 당신이 이것을 흡수하거나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처리하고, 당신의 행동에 반영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 또는 사고방식이 당신 안에도 있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행동을 형성하는 사고 패턴이 당신 안에도 있게 하라. 이 사고 패턴은 이 토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의미로 더 많이 표현될 것이다.

교만과 허영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겸손을 본받을 미덕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고방식도 당신 안에 있게 하십시오. 6절에서 11절까지의 문학적 논쟁의 세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줄로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상을 취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느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발견되었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으니,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몇 가지 논쟁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제기한 몇 가지 요점이나 이 특정 구절의 문학적 기능이나 구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첫째, 학자들 사이에서는 바울이 이 단락을 처음 썼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문단이 시처럼 읽히는 것을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번역에서도 번역자들이 들여쓰기를 해서 서 있는 시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빌립보서 이전에 이 문단을 썼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어딘가에 그것을 썼고, 나중에 편지에 추가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진 세 가지 견해는 주의 깊게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해설을 읽으면 때때로 두 가지 견해가

표현되거나 한 가지 견해가 모든 사람에게 표준 견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견해는 바울이 6~11절을 썼다고 말하는데, 바울이 쓴 것처럼 읽힌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보다 먼저 썼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이 시험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실제로 그것이 유포되고 있던 기독교 찬송가였고, 바울이 그냥 그것을 집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약간 편집했고, 그것을 빌립보서에 통합하여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 구절이나 그 구절들을 기독교 찬송가로 유포되고 있다고 말할 때, 문제는 찬송가의 내용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는 보통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는 보통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면, 이 구절의 내용을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 구성원들이 사용하게 될 때 어떻게 찬송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찬송가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유포되고 있는 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반드시 찬송가는 아니었습니다. 찬송가 언어를 사용하면 찬송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내용, 어느 정도의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에서 보고 싶은 구성 요소와 특징을 찾고 있습니다.

시적 구성 요소, 그렇습니다. 구조는 그것의 일부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찬송가라고 부를까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이 통합한 순환 찬송가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많은 해설자들이 이에 기울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이 강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면책 조항을 주어야 합니다. DePaulo가 쓴 책이 있습니다.

DePaulo의 책은 Hymn Fragments in the New Testament라고 불립니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수정되어 출판되었나요? 네, 저는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에서 DePaulo의 책을 리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리뷰를 접했다면, 그 리뷰가 돌고 있다는 걸 알지만, 가끔 어떤 사람들은 다크론이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묻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로 찬송가라고 말하는 데파올로의 주장과 출처 중 일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가 이것이 돌고 있는 찬송가라고 말하는 원고의 증거를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못할 때 말입니다.

저는 그저 만족할 뿐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찬송가라면, 어딘가에 이 부분만 포함된 파피루스 조각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어딘가에,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찬송가라면, 아니면 그것이 나중에 찬송가가 될 것이라면, 왜 바울은 그것을 쓸 수 없었을까요? 여기서 저는 세 번째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견해는 실제로 바울이 그것을 쓰지 않았고,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편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고, 매우 능숙한 편집자가 방법을 찾아서 말했습니다. 오, 바울의 이 구절은 내가 아는 흥미로운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아는 어딘가의 찬송가에 대한 것이고, 사실, 내가 그것을 가져오면 전체 대화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장은 바울이 이 특정 찬송가나 이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와! 가기 전에, 제 전공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너무 기술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 추론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그저 주장을 하고 주장을 위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쓴 편지이고, 서론에서 제가 당신의 주의를 끌었듯이, 그 편지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거나 두 편지가 합쳐져 있거나, 편지의 일부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바울의 완전한 편지로 취급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목하고 싶은 또 다른 사항은 이것입니다.

편지가 한 글자인지 두 글자를 함께 편집한 것인지에 대한 모든 논쟁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 어딘가에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편지가 한 글자라는 것을 의심하기 위해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 논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것, 즉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찬송가가 돌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수정하여 시험에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전통을 아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바울이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 기독교 공동체를 교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설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가끔은 글로도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 중요한 연설을 했는데, 제 대본에 없었던 것 중 하나가 대본에서 벗어나서 A Church to Keep I Have, A God to Glorify라는 찬송가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우리가 아는 흔한 찬송가를 인용했고, 그 찬송가의 언어적 본질은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학 작품에서 그런 주장을 하거나 말할 때는 이것이 유포되고 있다는 증거가 존재하고, 그것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추측이나 단순한 추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돌았다면, 바울의 글 외에는 다른 교회에서 동물 가죽에 그 찬송가를 베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건 왜일까 . 그런 증거는 없지. 그래서 나는 그 주장에 대해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야.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폴을 대화에서 쫓아내는 것 외에는 두 가지를 결합하려고 합니다.

저는 바울 학자입니다. 누군가가 바울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쫓아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모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모두 꺼냅니다.

나는 폴을 사랑해. 그를 원해. 편집자의 전체적인 관점은 이것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 생각해.

이것은 아마도 초기 교회에 바울의 빌립보서라는 문서가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편지를 사용했거나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들이 6 절 에서 11절을 뺀 편지를 받고 즐겼던 편지였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이유로 우리는 그러한 편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와! 빌립보에서는 그런 편지를 베끼는 데 돈을 주는 것조차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라색 천을 파는 티테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인은 꽤 부유했습니다.

빌립보인들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바울이 그들이 가장 관대한 교회라고 말했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찬송가 없이도 다른 편지 사본을 인쇄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편집자가 이 찬송가 자료를 바울이 나중에 쓴 후에 시험에 가져왔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기 교회가 너무 멍청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편지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삽입하도록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바울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메모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코 옳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설득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가 그것을 추가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능숙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조차도 우리 아카데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제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추측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건 너무 과도합니다. 그러니 이것의 문학적 패턴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어딘가에 찬송가를 가져왔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 특정 구절의 시적 본질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약 어디에도 없는 이 구절의 특정 어휘의 현실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부 언어는 희귀합니다. 글, 리듬, 운율이 맞고, 시처럼 들립니다. 바울이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편지에 썼습니다.

그는 어딘가에서 그것을 얻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의 예술적 경로가 나와서, 오, 그냥 표현을 해보자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런데, 성경에 들여쓰기가 있는 구절을 바울이 쓴 방식은 아닙니다.

바울은 구절도 없고 장도 없고 구두점도 없이 동물 가족에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에서 관찰하고 싶은 문학적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토론과 관련하여, 이 구절이 시나 찬송가라는 개념은 아마도 기독교의 첫 1700년 동안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 구절이 찬송가인지, 아니면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1800년대 어딘가에서야 그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랄프 마틴이 그의 책인 헌신에서 언급한 것을 처음 발견했는데, 이 책에는 이 구절에만 전념한 방대한 책이 있습니다. 마틴은 이 구절이 찬송가로 처음 언급된 것은 1899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강의에서 아직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봐요, 여러분, 제가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회의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되고, 종종 우리는 일을 너무 확장했을 때 나중에 힘든 교훈을 얻고, 증거가 그와 모순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틴은 찬송가라는 개념, 제가 자라면서 접했고, 학생 시절에 공부했고, 빌립보서에서 공부하면서 가끔씩 배웠던 개념이 1899년까지 초기 기독교에서 서신에 대한 대화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꽤 최근입니다. 심지어 인기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유행했습니다. 100년도 안 됐죠. 신약 학자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오, 바울의 그리스어는 좋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면 신약 학자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냥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과소평가입니다. 그것은 1920년대에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대한 그리스어나 시리아어 주석에서 이 구절을 찬송가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 당신은 나에게 묻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하려는 전부는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중요한 서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석을 집어서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시이든 바울이 썼든 이 특정 주장에 대해 너무 산만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대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찬송가였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그럴 수도 있지만,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찬송가가 된다면. 오, 맞아요, 실제로 몇 마디를 따온 찬송가를 알아요.

그 찬송가 중 하나 아세요? His Lord. His Lord.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심지어 현대 찬송가 중 하나에서도 그것을 골라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찬송가가 있었고 바울이 그것을 따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본문을 불신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해 봅시다.

교회가 교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데 성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내용적으로 접근할 때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시험은 신학적으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험에서 주요 교리가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제가 앞서 확립하려고 했던 것처럼, 요점은 빌립보인들이 사고방식, 즉 프로네시스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고방식. 요점은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학적인 것이거나 우리가 나중에 3세기, 4세기에 와서 논쟁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의 주요 내용은 설명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라이프스타일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도 그것을 본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빌립보서에 대한 해설을 읽을 수 있겠지만, 이 찬송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카이사르의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 시적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혹은 그리스도와 현상 유지적 사고방식.

정상에 오르고 싶다면 모든 사람의 목을 밟아야 한다는 사고방식.  
실제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밀어내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에 이르는 길이 겸손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그의 삶과 사역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카이사르와 대조적으로 본다면, 당신은 주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이 권능을 보여주고, 권능을 행사하고, 모든 곳에서 명령과 권위를 사용하여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이 강력한 인물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종의 자리를 대신할 그리스도, 정상에 이르는 길로서, 다른 주님. 그리고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그리스어로 오노 마 , 이름, 명성, 허가, 그에게 다른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지위를 주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언급될 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허가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와, 정말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군요. 카이사르가 위에서 아래로 행사하고자 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강조할 몇 가지 핵심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너무 기술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살펴봐야 할 주요 문제는 몇 가지 키워드라는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본질이나 형태 그 자체. 파악해야 할 무언가라는 단어.

제임스 왕, 뭔가를 강탈당할 것이다. 그 단어는 자신을 비우거나 비우는 것이다. 그 단어는, 그는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의 형상을 취했다.

그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주요 신학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저는 가능한 한 이것의 일부를 풀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시작합시다.

따라서 당신이 이런 질문을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신의 형상을 지녔 거나, 그의 본성 자체가 신이라는 것은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시사합니까? 그가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이었습니까. 선재하신 그리스도에서, 이 구절에서 그가 그의 본성 자체가 신이었다고 말하거나, 그가 신의 형상이었다고 말할 때.

무슨 뜻인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뜻인가요? 그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인가요? 그가 하나님의 모형과 같다는 뜻인가요? 글썄요, 가장 간단한 답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과 본질적 속성에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 구절을 읽어 봅시다.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스도는 신의 복제입니다. 하지만 그의 본질에서 그는 신입니다. Fee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신이 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현재 NIV에서 모든 자연신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 이해입니다. 그러니 그 단어를 마주치면 그 구절로 들어가 봅시다. 이것이 전달되는 내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특정 종파의 사람들이 이 언어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글썄요, 7절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용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는 어떻게 자신을 비우셨을까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에서 주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토론에서 그 중 일부를 살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는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그는 자신의 권능을 비우셨을까요? 그는 자신의 신성을 비우셨을까요?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이기를 멈췄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그리스도가 견고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기를 멈췄다면, 그는 하나님이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나중에 풀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학자들과 최근 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자 중 세 명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죠. 예를 들어, 브루스 라이트. 요점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자기 주장이나 자기 확대를 위한 변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이점이나 특권을 포기하는 기회로, 따라서 자기 빈곤화와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저의 빌립보서 교수였던 Fee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등함은 그리스도가 선재할 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바울은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그리스도가 빌립보인들이 이전에 알았던 신들과 주(主)들과 같이 움켜쥐고 존재를 잡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권자의 권능에 대한 정상적인 기대, 이기심의 개념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잡아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등함은 그가 자신을 비우셨을 때 가장 진실된 표현을 찾았습니다.

몇 년 전, 워더링턴은 그가 진정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을 비웠다고 썼습니다. 그의 신성한 특권과 지위는 하인의 지위와 선택과 특권의 부족과 극적으로 대조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해설을 발표한 이 세 학자 중 누구도 그가 자신의 권능이나 신성을 비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은 그가 자신의 특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승영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굴욕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승영은 권세와 권능을 포함하여 그가 전반적으로 거둔 승리를 나타냅니까? 그가 마법이나 하늘, 땅,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권능을 암시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이름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순종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에 대한 신성한 입증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본보기입니다. 그들은 순종으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은 내 소원이나 내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위대해지고 싶다면 모든 사람의 어깨를 밟아야 한다는 현상 유지적 사고방식과는 반대로요.

당신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온갖 자만심과 힘을 보여줍니다. 워더링턴은 아마도 매우 흥미롭고도 정확한 방식으로 이것을 더 설명합니다.

지위 의식이 강한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한 특권과 지위를 벗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책임, 한계, 지위를 떠맡으셨습니다. 사실, 인간들 가운데 있는 하인의 지위를 떠맡으셨습니다.

빌립보인들도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과거와 같이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르고 더 자기 희생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풀러 신학 대학의 한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대한 통치자, 영웅, 그리고 빌립보 시민들의 신들은 권력을 위해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황제 칼리굴라와 네로,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 아폴로와 제우스의 신들이 언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상인 그리스도에게는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인의 형상을 취하셨고, 잘 번역된 노예였습니다. 그는 봉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비우셨는가? 다시 한 번. 이것은 교리와 초기 교회에 대한 교리 연구에서 주요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성을 비우셨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완전히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장을 더 발전시켜서, 그가 신의 형상이었지만 실제로 신은 아니었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가 들어와서 자신의 권능, 전지전능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우셨다면,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의 신성한 권능, 특권,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일까요? 어쩌면 21세기에, 바울이 교회에 요구하는 바를 생각해볼 수 있는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구절이 있는데, 왜 이 모든 토론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글썄요, 당신이 그 질문을 한 것이 기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키워드를 소개할 때, 저는 비우기라는 단어를 소개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을 비운 방식입니다. 그 단어는 나중에 초기 교회의 주요 교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주요 논쟁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케노시스 교리 또는 비우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케노시스인 것을 따서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론이나 교리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단어의 사용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어로는 비우다, 따로 두다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에서 논쟁되고 토론될 교리가 될 것이므로, 이 교리나 이론은

그리스도께서 전능함, 전지전능함, 지상에서의 편재성과 같은 신성한 속성을 비우고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교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이 교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 조심하라고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왔습니다.

글쎄요, 이 교리는 우리가 문헌에서 아는 한, 1860년부터 1880년까지 독일에서 논의를 위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1890년부터 1910년까지 영국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 그리스도, 그는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립보서 2장 7절을 설명했습니다. 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비우셨으므로 우리 중 한 사람과 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엄청 납니다 .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제한하셨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훼손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상에 있었던 30, 33년 동안 그것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의미는 엄청 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답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로 돌아가서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겠습니다.

당신은 19세기 유럽 신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본문에 대한 그런 교리나 그런 해석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일이 얼마나 늦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끌어내려고 했는지 의심해 보세요. 당신이 주목하고 싶은 다음 사항은 예수께서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능력을 비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으니, 이는 권능에 속한 것이니, 종의 형상을 취하셨으니, 곧 노예라는 말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발견되셨으므로, 그는 자신을 낮추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자신의 권능을 비웠다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읽은 본문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는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종의 형상을 취함으로써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하늘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뽐낼 수 있는 것을 그는 모두 내버려두어 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완전히 신성하고 완전히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 질문 몇 가지에 답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비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5장의 맥락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에서 그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섬기기 위해 종, 노예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그의 성육신으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순종하며 일하는 종의 형상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겸손과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높이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명성, 이름,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인 예수가

언급되었을 때, 지금은 위대해 보이는 모든 것과 위대하다고 인식되는 모든 것이 이제 그 앞에 숙여질 수 있는데, 그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시험을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바울은 교회 안에 연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같은 정신과 영혼으로 한 영 안에서 일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남용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발견되셨으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에게 주사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제, 그 이름이 언급된 것을 주목하세요. 그것은 모든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습니다. 권위, 마법의 힘, 어떤 이름이든, 모든 이름이 그의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종과 겸손으로 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 즉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복종되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특별한 차원을 가진 자들은 모두 그에게 복종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오, 그리고 당신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모든 혀, 모든 혀, 모든 혀, 모든 혀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모든 혀. 심지어 지금은 복음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아볼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폴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폴과 그가 하는 일이 기대돼요.

저는 그가 이 교회와 공유할 내용에 흥분합니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복음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바울은 반대에 직면했을 때 연합과 확고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는 그들에게 강한 연합감을 갖기를 호소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구절에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갖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고방식은 그들의 사고방식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호소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적절한 본보기로 보여 주었으므로, 그는 그들이 빛으로 빛나도록 도전할 수 있습니다.

폴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마음에 들어요. 폴이 그 호소를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몇 분 후에 그것에 대해 다루죠.

세상에서 빛나라는 호소. 이 세상에서 빛나라는 호소에서, 페리코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강조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절을 읽으면 무서워할 정도로 급진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일의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벤 윌링턴이

내가 언급한 그리스 수사학의 관점에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패턴을 알아차립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멀리 밀어붙이는 큰, 큰, 큰 팬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차원 중 일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빛나라고 호소합니다.

다음 세션을 시작할 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 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잠시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에 그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하인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노예.

그는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때때로 그는 너무 피곤해서 배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에서 보여준 순종은 그를 모든 것보다 더 높이 높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희생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사고방식이며,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권력이나 특권을 제쳐두는 것을 기꺼이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사고방식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것이 진행 중일 때,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걷고 사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바울은 노력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겸손해지기로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 그리고 저는 제가 아프리카 마을에서 자란 아프리카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 학자로서, 제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마도 그 작은 마을에 사는 6,000명 정도의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중에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중 겨우 세 명 중 한 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삼촌은 앉아서 그가 제 삼촌이고 저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상기시키고 싶어합니다.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봉사합니다.

사실, 진실을 말하자면, 그들은 내가 가진 학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전혀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내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내 민족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성육신적 행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은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거나 산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사고방식을 개발하여 결국 그의 이름이 우리 삶에서 영광을 받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의 대화와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바울이 쓴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에 대해 더 도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Dan Darko 박사와 그의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입니다.  
여기는 세션 12, 그리스도 찬송가, 빌립보서 2:5-11입니다.